

# 관광공사, 내장산리조트 관광 용지 분양

호텔·콘도·상가·운동 오락 시설 등 총 13개 필지  
국립공원·저수지 등 경관 수려...전북 내륙 관광 거점

한국관광공사가 정읍시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내 호텔·콘도미니엄 등 숙박 시설과 상가 시설, 운동 오락 시설 등 총 13개 필지를 분양한다.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는 내장산 국립공원, 용산저수지 등에 둘러싸여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전북 지역 중심에 입지해 내륙 관광 거점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에서 40분, 전주에서 1시간 거리인 것을 비롯해 전북도 내 주요 도시에서 2시간 이내 권역에 있다. 배후 수요 216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차로 약 3시간 거리

에 입지하고, 호남고속도로(내장산 IC에서 차로 10분), 서해안고속도로(선운산 IC에서 차로 25분) 등에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다.

특히 2015년 KTX가 개통해 서울에서 정읍역까지 1시간30분 이내 진입할 수 있다. 정읍역에서 대상지까지 20분가량 소요된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KTX 이용시 약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셈이다.

주요 수요층은 내장산 국립공원 방문객이다. 인근 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숙박 수요 등도 있다. 올해 하반기 리조트 내 18홀 규모 골프장이 개장할 예정이어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감도.

이곳은 2014년 기반 조성 공사가 완료해 개별사업자 투자 여건이 완비됐다. 분양 면적의 87.6%가 이미 분양됐다.

이번에 분양되는 필지는 하이랜드호텔·엘리시움빌라·리조트스 등 호텔·콘도(스파파크)·여관(메이플빌리지) 등 숙박시설 8개 필지(11만47.7㎡)를 비롯해 상가(F&C 몰)·전통문화의 집 등 상업시설 4개 필지(1만7090.1㎡), 운동오락시설(스파

파크) 1개 필지(1만1911.5㎡) 등 총 13개 필지다.

계약 체결을 한 뒤 대금을 선납하면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분양 대금 납부는 일시와 분할이 모두 가능하다. 완납 이후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입찰 신청은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co.kr)에서 17일부터 28일 오후 4시까지 하면 된다.

한국관광공사는 "토지 분양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분양 신청 전 현장과 현물을 확인한 뒤 공사 입주 신청 유의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kto.visitkorea.or.kr/알림-공고공모) 참조하고 관광개발팀(033-738-3547)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지난 10일 열린 해남군 평생학습관 개관식에서 명현관 교수 등 참가자들이 개관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 해남군민 '정보 공유의 장' 평생학습관 개관

해남군민의 평생학습을 책임질 평생학습관이 지난 10일 개관했다.

군은 5억원을 들여 기존 여성회관을 리모델링, 평생학습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총면적 2098㎡ 규모로 각종 강의실과 관련 지원 시설을 갖췄다.

군민 교육은 물론 평생학습 관련 상담과 각종 정보 제공으로 군민 평생학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엘리베이터 시설과 장애인 화장실을 신설했으며 바리스타

강의실 등 특성과 강의실도 추가했다.

앞으로 평생학습관에서는 군민의 다양한 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 자격증 취득, 문해교육, 교양강좌, 외국어 등 총 25여 개의 상설·비상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평생학습관 개관으로 주민이 더 많은 평생학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순창군, 귀농·귀촌 최우수 지자체 선정

고양 일산킨텍스 국제관광박람회

순창군은 지난 10일 2018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귀농·귀촌 분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사진>

순창군은 6~9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박람회 귀농·귀촌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군은 귀농인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거주지 해결을 위해 임시거주지 30가구를 운영하고 빈집리모델링 사업도 지원했다.

귀농·귀촌 센터를 운영해 6주간의 합숙 교육 등 예비귀농인이 농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금 지원, 주택과 농경지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읍면별 멘토 컨설팅도 하는 등 색다른 지원체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군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귀농·귀촌 사업 홍보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도시민 홍보관을 운영해 귀농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설계한 순창군 농업기술과장은 "순창군이 귀농·귀촌 일민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

## 전주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본격 추진

미추서자 38명 공훈기록 수집 조사 활동

전주시는 전주시역 3·1운동 유공자 중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미추서자 38명에 대한 공훈기록을 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앞서 추진된 '전주시역 3·1운동 역사 및 100주년 기념사업 발굴 학술용역'을 통해 발굴된 사업으로, 전주시역 3·1운동에 참여한 인물 61명의 판결문을 분

석하는 과정에서 발굴됐다.

전주시역 3·1운동을 이끌었던 61명 중 23명은 독립유공자로서 정부 포상을 받았지만, 나머지 38명은 아직 이들의 업적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돌아보는 어제'란 첫 사업으로 이들의 공훈기록을 조사해 서훈을 추서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공훈기록 조사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이 맡게 되며 약 3개월간 38명의 행적과 이들이 남긴 역사적 업적, 공훈기

록을 수집해 조사하게 된다.

시는 용역이 완료 되는 대로 조사한 공훈기록을 바탕으로 국가보훈처에 서훈 신청을 진행해 다가오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때 표창을 전수할 계획이 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미추서 유공자 추서 사업은 단순히 38명에 대한 포상에 의미를 넘어 순국선열들의 호국정신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역사적식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콘퍼런스

오늘 새만금서 열려

군산시는 13·14일 양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201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제2회 콘퍼런스'가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하고 군산시의 주관으로 개최된다.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59개 시군구가 참가할 예정으로 임시총회와 개막식, 콘퍼런스, 박람회를 통해 회원도시 간 다양한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을 공유하게 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도 통제영과 조명수군 활동 재조명 국제학술세미나

신과 진린 420년만의 재회



지난 10일 정보고기념관에서 열린 '고금도 통제영과 조명수군 활동 재조명 국제학술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 이순신·진린 장군 재조명 학술 세미나 열려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진린 장군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완도군은 지난 10일 정보고기념관에서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와 완도문화원 주관으로 '고금도 통제영과 조명수군 활동 재조명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순신과 진린 420년만의 재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이순신 장군의 고금도 주둔 420주년을 기념하고 통제영 고금도를 재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제정환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장은 '이순신의 수군재건 활동과 고금도 통제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순신 장군이 고금도 통제영에서 5개월 간 서남해안 지역민들의 희생

덕분에 수군을 재건할 수 있었다'며 '명나라 수군과 연합 작전을 수행해 노량해전 등 주요 해전에 승리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경희 한서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는 '진린 장군 재평가와 관왕묘 복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진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며 "진린은 청렴하고 조선을 위해 힘을 다한 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우봉 전북대 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송은일 박사(전남대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박현규 교수(순천향대 중문과), 김재명 박사(종로구청 동관왕묘 담당팀장) 등이 참여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제품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2016년 9월 2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9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